

한국 창세신화, 대보름 민속, 일광놀이의 비교 고찰

신연우*

- I. 머리말
- II. 창세신화의 특징 네 가지
- III. 대응되는 대보름 민속들
- IV. 풍물굿의 도둑잡이 · 일광놀이
- V. 비교의 의미
- VI.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 창세신화에 싸움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 천지왕과 수명장자 등의 싸움이 창세 신화의 주된 화소를 이룬다. 이 싸움의 양상과 대보름 민속의 싸움을 견주어보면 대보름 민속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을 이루는 때이고 창세 신화는 세계의 시작을 노래하기에 ‘처음’ 또는 ‘始初’라는 점에서 일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구비전승되는 본풀이와 본풀이의 내용에 대응하는 세시절기의 의례와 놀이, 농악의 뒷굿에 등장하는 특정한 놀이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창세신화에 보이는 두 주체의 싸움, 그 과정에 보이는 속이기와 흠치기 화소, 해와 달의 모티프와 불 또는 빛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천부지모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생산에의 소망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는 그대로 대보름 민속과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팔매 싸움, 줄다리기, 내농작 등 싸움의 형식을 갖는 민속들, 복토 흠치기와 디딜방아 흠치기 등에 보이는 흠치기/속이기의 양상, 달집태우기나 땃불놓기 등 대보름에 흔한 불 또는 빛과 관련된 민속들,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나 줄다리기로 대변되는 생산에의 소망 등이 그러했다.

이 둘 사이에 마을굿에서 도둑맞은 해를 되찾는다는 일광놀이를 연관지어보면 더 많은 민속적 사실을 일관되게 해명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특히 사제자로서 상식의 역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을 강신무권의 무당과 비교해보면 홍박씨의 해의 상징성과 그것을 도둑맞고 되찾는다는 이미지가 창세신화와 접맥해 있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세계 태초의 시간과 한 해의 시작의 시간이 동질의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다. 엘리아데는 세계 곳곳의 신화와 민속을 이용해 이들 모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 과정의 반복적 주기적 재연은 농경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과 닮아 있기에 한해의 시작 의례가 기풍의레이기도 하다는 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특정한 정월의 세시풍속놀이에서 시간의 순환과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창세신화에서 구현하는 특정한 시간의 반복과 재생에서 원초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재배열하면서 환기하는 창세신화의 면모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창세신화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면서 우리의 농경놀이의 주술적 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한국창세신화, 대보름 민속, 일광놀이, 싸움, 풍요제의, 신년의례, 엘리아데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와 대보름 풍속을 비교할만한 근거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둘은 존재하는 범주 자체가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한 자리에 놓고 살펴본다는 시도가 무리일 것이다. 당연히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다.

그런데 임재해는 설과 대보름 민속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집단적으로 하는 대동놀이나 패놀이는 대부분 정월대보름에 한다. 이를테면 줄당기기, 동채싸움, 뚝다리밟기, 편싸움, 햇불싸움, 고싸움, 지신밟기 등이 주로 대보름에 놀아지는 놀이들이다. 지신밟기와 같은 대동놀이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상하, 동서, 남북, 내외 등으로 패를 갈라서 겨루기를 하는 패놀이들이다.¹⁾

일년의 여러 명절 중 대보름에 유독 패를 갈라 싸우는 민속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임재해가 적절히 지적했고 모두들 수긍하듯이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祈

1) 임재해, 『설과 보름 민속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상관성』, 『한국민속학』 19권1호(한국민속학회, 1986), 306쪽.

豊 및 占豊 儀禮로 나타나는 겨울과 여름의 싸움굿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달이 가장 밝은 때에 풍년을 소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민속은 우리 땅에서 농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혹시 농경 이전에도 싸움의 모습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농경 이전의 인류에게도 싸움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돌싸움(石戰)의 경우에도 풍흉과 연관 있는 것일까? 싸움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이런 제의적 싸움이 꼭 새해 벽두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제인 해리스 여사에 따르면 맨 섬(The Isle of Man)에서는 5월에 봄의 여왕과 겨울의 여왕의 두 무리가 싸우는 메이데이 행사도 있으며, 에스키모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뇌조파와 오리파가 일종의 줄다리기를 해서 다음 해의 날씨를 점친다.³⁾ 패를 갈라 싸우는 민속이 보름달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⁴⁾은 심분 공감이가 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의 조망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창세신화에 싸움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 천지왕과 수명장자 등의 싸움이 창세 신화의 주된 화소를 이룬다. 이 싸움의 양상과 대보름 민속의 싸움을 견주어 보면 대보름 민속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을 이루는 때이고 창세 신화는 세계의 시작을 노래하기에 ‘처음’ 또는 ‘始初’라는 점에서 일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런 소박한 의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구비전승되는 본풀이와 본풀이의 내용에 대응하는 세시절기의 의례와 놀이, 농악의 뒷곳에 등장하는 특정한 놀이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본풀이라고 하는 내적 요소와 세시풍속의 특정 절기 의례와 놀이를 비교하면서 신화와 의례의 상관성을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한 모색을 핵심으로 한다. 놀이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의 양상을 주목하여 주술적 의미와 문화적 함의를 추출하면서 신화 연구의 새로운 착상을 덧붙태면서 연구를 진작하고자 한다.

2) 임재해, 위의 논문, 308쪽.

3) J. 해리스, 오병남·김현희 공역, 『고대 예술과 제의』(예전사, 1996), 64쪽.

4) 임재해, 앞의 논문, 318쪽.

이를 위해 먼저 창세 신화에 보이는 싸움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되는 세시의례와 특정한 놀이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비교하고 문화적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이어 대보름 민속에서의 특징을 그와 견주어보기로 한다. 특정한 정월의 세시풍속놀이에서 시간의 순환과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창세 신화에서 구현하는 특정한 시간의 반복과 재생에서 원초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재배열하면서 환기하는 창세신화의 면모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창세신화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면서 우리의 농경 놀이의 주술적 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II. 창세신화의 특징 네 가지

김현선은 전국의 창세신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주어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다.⁵⁾ 28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 이중 구연자가 같은 것은 하나로 묶는 등, 우리에게 필요한 무가 자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함흥,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1923 채록.
2. 강계, 전명수 구연, <창세가>, 1931 채록.
3. 함흥, 강춘옥 구연, <생긔>, 1965 채록.
4. 평양, 정운학 구연, <삼태자풀이>, 1966 발표.
5. 울진, 권순녀 구연, <순산축원>, 1975 구연 .
6. 오산, 이종만 구연, <시루말>, 1937 발표.
7. 제주도, 문창현 필사, <초감제><천지왕본>, 1980년대.
8. 서귀포, 박봉춘 구연, <초감제><천지왕본풀이>, 1937 발표.
9. 제주도, 김두원 필사, <초감제><천지왕본>, 1963 발표.
10. 조천, 정주병 구연, <베포도엮침><천지왕본풀이>, 1980 발표.
11. 구좌, 고대중 구연, <천지도엮>, 1962 구연.

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227~481쪽.

12. 한경,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1974 발표.
13. 표선,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1991 발표.
14. 안덕, 고창학 구연, <초감제>, 1991 발표.
15. 서귀포, 강태욱 구연, <초감제>, 1991 발표.
16. 한경, 김병효 구연, <초감제>, 1991 발표.

이들 창세신화에는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물과 불의 근본, 인간 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의 신화소가 들어 있다.⁶⁾ 이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거인신격의 인세차지 경쟁과 일월 조정, 그리고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 출생 화소이다. 그 앞의 것들은 창세의 주체의 일방적인 활동을 보여주는데 반해 이들은 싸움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천지왕과 장자(수명장자)와의 싸움도 주목된다. 이를 간략히 말하면 전반부는 창세의 과정담이고 후반부는 인세차지 경쟁담이다. 후자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

우선 인세차지 경쟁을 본다.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나타나는 화소지만 가장 먼저 채록되었고 내용도 풍부한 함남 함흥의 큰 무녀 김쌍돌이 구연의 <창세가>를 살펴보자.

그랬는데, 석가님이 나와서서 / 이 세월을 아사췌자고 마련하와,
미력님의 말숨이, / 아직은 내 세월이지, 너 세월은 못된다.
석가님의 말숨이, / 미력님 세월은 다 갔다. 인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
미력님의 말숨이, / 너 내 세월 앓겠거든, 너와 나와 내기 시행하자,
더럽고 축축한 이 석가야. (233쪽)

석가와 미륵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창세의 과정에서 흔히 형제신 또는 선신과 악신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과 동궐의 것이다. 세상을 놓고 한판 겨루기를 하자는 싸움은 석가

6) 김현선, 위의 책, 17쪽.

가 시작한다. 세상을 만든 것은 미륵인데 석가가 그 세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쌍돌이 구연본은 이 싸움이 극도로 적대적임을 “더럽고 축축한 이 석가야” 하는 미륵의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이 흥미롭다.

첫째 경쟁은 동해중에 금병 은병을 걸고 누구의 병의 줄이 끊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석가의 병의 줄이 끊어져서 표면으로는 미륵이 이긴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쟁은 여름 성천강을 열리는 시험인데 미륵은 동지채를 써서 강을 열리고 석가는 입춘채를 써서 실패하여 역시 석가가 진다. 그런데 이는 표면과 달리 석가의 승리로 이해된다.

병의 줄이 끊어지면 병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내린다. 얼었던 성천강은 얼음이 풀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둘 다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가는 물을 흐르게 하였지만 미륵은 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말았다. 전명수 구연본에서는 병 속에 술이 들어 있어서 땅에 떨어져 내리자 “도랑물과 우물물과 새암물과 큰강물이다”(241쪽)이 물은 먹고 사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농사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들의 시험이 식물의 생장과 연관 있음은 이어지는 세 번째 시험에서 잘 보여준다.

너와 나와 한 방에서 누워서 / 모란 꼬치 모랑모랑 피여서
 내 무렵헤 올라오면 내 세월이요 / 너 무렵헤 올라오면 너 세월이라.
 석가는 도적 심사를 먹고 반잠 자고 / 미륵님은 찬잠을 잤다.
 미륵님 무렵 우에 / 모란 꼬치 피여올랐소아.
 석가가 중등사리로 썩거다가 / 저 무렵헤 꼬졌다.

제주도의 정주병 구연본은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한다.

설운 성님 무정 눈에 줌이 든다. 설운 아시 것눈은 굵고 속눈은 텃닷. 성님 앞윗
 꽃은 이녁앞테레 드려 놓고, 이녁 꽃은 성님 알테레 노아두고, “성님 성님, 일어납서,
 줌심도 자십서.” 일어나고 보난, 성님 앞윗 환생꽃은 아시 앞의 가고, 아시 앞윗 겹뉴
 울꽃은 성님 앞의 가왔고나. (436쪽)

미륵의 꽃은 자연스럽게 피지만, 석가의 꽃은 남의 것을 훔쳐오고 중간을 뚝 잘라서 다시 재배하여 핀다. 이는 농경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즉 농경은 자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륵은 자연 세계를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가공하는 농경이다. 식물은 그 자체로 인간이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인간은 오랜 기간 식물을 길들여 알곡을 크게 하고 수를 많게 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품종 개량을 했다. 지금의 쌀, 옥수수, 밀 등은 모두 그렇게 개량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륵과 석가의 싸움은 겨울과 여름의 싸움 이전에, 자연과 인간의 싸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꽃피우기 경쟁담은 훔치기와 속이기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석가는 한잠 자자고 하고는 자는 척하여 미륵을 속인다. 미륵이 온 잠을 자는 동안에 몰래 미륵 앞에 또는 무릎에 피어 있는 꽃을 잘라오거나 바꿔치기한다. 이 점이 우리 창세신화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에서 속이기 또는 훔치기는 대단히 중요한 화소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주몽 신화에서 주몽이 송양왕을 속이고 악기 등을 훔쳐오는 것과, 구약성서에서 야콥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신화적 성격이 같다.

다음으로 일월 조정의 경우는 하늘에 해가 둘 달이 둘씩 떠서 이를 하나씩 없애서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들었다는 신화소이다. 함흥 출신의 무녀인 강춘옥 구연본에는 석가가 속임수로 세상을 차지했지만 그 결과로 “한 하늘에 해가 둘이 뜨고 달이 둘이 떴”기 때문에 “밤에느 석자 세치 디리 언다. 낮이에느 석자 세치 디리 탄다. 인간이 얼어 죽고 데어 죽고”(255쪽) 하는 세상이 되자 석가가 서천국으로 먼 여행을 하여 부처님을 만난다. 세시옥이라는 박색 처녀를 만나 도움을 받아 부처님이 낸 시험을 통과하여 달 하나 해 하나를 떼어 낸다. 제주도의 경우는 대부분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활을 쏘아 해와 달을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떨어뜨린다.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한발과 홍수, 흑한과 흑서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고,⁷⁾ 창세시절의 혼란을 시정하고 인세의 질서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읽기도 한다.⁸⁾ 우리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해가

7)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7~18쪽; 김현선, 앞의 책, 218~219쪽.

둘, 넷, 일곱, 열, 예순 여섯, 해 여덟 달 아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을 하나 하나 가려내기보다는 폭넓게 보아 창세의 혼란에서 인세를 위한 질서로 개편되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해와 달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둘씩 있는 것을 조정하여 질서를 가져왔다는 것은,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앴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해와 달이 적절하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평양의 정운학 구연본에는 해와 달이 둘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세를 떠나는 미륵이 해와 달을 도롱 소매에 넣어 가버려서 세상에는 빛이 없게 되었다. 석가는 채도사를 매를 때려서 해와 달을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밝았더라. 日月일랑 명랑을 하여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298쪽)고 하여 사람 살기에 적절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해와 달의 숫자나 거인신의 영웅적 면모보다는 세상에 적절한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 화소이다. 창세 자체와 창세의 주체가 혼인하여 지상에서 후손을 보는 이야기는 직접 연관되지 않아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북부 지역의 창세신화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제주도에서는 거의 모든 각편에 등장한다. 그렇지만 북부에서도 서장애기 또는 당금애기가 창세 신화에 이어져 구연되는 것을 고려하면 천부지모의 신 화소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신화소에도 여러 의미를 담아볼 수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무엇보다 생산의 모습이다. 천지왕이 박우왕 또는 서수아미 등과 혼인하여 아들 형제를 얻는 것이나 당금애기가 서인님과 혼인하여 삼형제를 얻는 것은 모두 그 자체로 생산에 대한 주술적 효과를 노린다고 보인다. 제시 웨스턴은 『마하바라타』의 한 삽화를 든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젊은 브라만으로 인해 왕국에 기쁨이 들자 왕은 그를 유혹하여 공주와 결합하게 한다. 그러자 많은 비가 내린다. 이에 대해 제시 웨스턴은 “형식적인 결혼식이 ‘풍요Fertility’ 제식의 일부로 자주 행해지며 이는

8)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태학사, 1999), 162쪽.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 특히 효험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온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⁹⁾ 이와 같이, 창세 서사시는 세상과 인간을 낳은 이야기이며 이 신화의 끝에 당금애기 즉 <제석본풀이>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창조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었으며, 나아가 자녀를 낳고 곡식을 생산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앙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이해하게 한다. 이에 대해 신연우는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고, 고난 속에서도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신이 되거나 왕이 된다는 일련의 반복되는 삽화들은 그 자체로 생산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다. 그것이 곡식이건 사람이건 치성이건 야합이건 새로운 생산을 가져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⁰⁾

이상으로 우리 창세신화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세차지로 나타나는 두 주체의 싸움, 그 과정에서 보이는 흠치기 또는 속이기, 해와 달의 신화소가 보여주는 불과 빛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천부지모의 결합에 보이는 생산에의 소망 등이다. 창세신화의 전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지만 이런 모습이 대보름 풍속과 비견되는 양상을 띠는 것은 지적하여 볼 수 있을 듯하다.

III. 대응되는 대보름 민속들

대보름 민속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돌팔매 싸움, 줄다리기, 내농작 등 경쟁 또는 싸움의 양상을 보이는 놀이들이다. 石戰이라고도 하는 돌팔매 싸움은 놀이라기보다는 진짜 싸움에 가깝다. 영조 47년 11월 18일조에는 평양에서 대보름에 벌이는 석전을 엄금하게 하였다.¹¹⁾ 이는 석전이 무지막지한 싸움이었기 때문이

9) J. 웨스턴, 정덕애 역,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문학과지성사, 1988), 43쪽.

10) 신연우,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역사성과 문학성」, 『고전문학연구』 제36집(한국고전문학회, 2009), 126쪽.

11) 英祖實錄 四十七年(1771年) > 四十七年 十一月. 한국고전종합DB. “일찍이 듣건대 평양(平壤)에서는 상원일(上元日)에 석전(石戰)을 벌인다고 하니, 장(杖)으로 치는 것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더욱이 돌맹이이겠는가? 관서에 분부해서 일체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경중(京中)에서 단오에 벌이는 씨름과 원일에 벌이는 석전을 포청에 분부해서 이를 범하는 자는 중중결곤(從重決棍)하게 하라.”(曾聞平壤, 上元日石戰云, 杖打猶然, 況石塊乎? 分付關西, 一體嚴禁, 京中端午角觝, 元日石戰, 分付捕廳, 犯此者從重決棍).

다. 다음 글은 『동국세시기』의 기록이다.

삼문(三門), 즉 남대문, 서대문 및 그 중간의 서소문 밖의 주민들과 아현(阿峴) 주민들이 때를 이루어 편을 가르 다음 몽둥이를 들거나 돌을 던지며 고향을 치면서 달려들어 만리동 고개 위에서 접전하는 모양을 하는데, 이것을 편싸움[邊戰]이라고 하며 변두리로 도망가는 편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속설에 삼문밖 편이 이기면 경기 일대에 풍년이 들고 아현 편이 이기면 팔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용산과 마포에 사는 소년들 중에는 패를 지어 와서 아현 편을 돕는다. 바야흐로 싸움이 한창 심해지면 고향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가 되며 머리를 싸매고 서로 공격하는데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져 피를 보고도 그치지 않는다. 그러다가 죽거나 상처가 나도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보살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돌이 무서워 피하고, 금지시켜야 하는 관에서 특별히 이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고질적인 악습이 되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¹²⁾

이 기록에서도 대보름 돌팔매 싸움 민속을 한 해의 풍흉과 연관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줄다리기와 너무 다르다. 줄다리기는 벗짚으로 만든 줄과 그것의 모양을 암수로 나누어 성적인 배분을 하고 여성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들기에 그렇게 되도록 승부를 조정한다는 점 등 농사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궁에서 신하들이 편을 갈라 모의농사 경쟁을 하는 內農作 또는 假農作도 줄다리기와 마찬가지로 농경적인 면모가 강하다.

돌팔매 싸움은 차라리 고구려 기록과 맞닿아 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초에 패수 가에 모여 노는데 …… 끝나면 왕은 옷을 입은 채 물에 들어가고, 좌우 이부로 나누어 물과 돌로 서로 뿌리고 던지며 소리치고 쫓고 쫓기를 두세 차례 하고 멈춘다.”고 했다.¹³⁾ 한 겨울에 왕이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고, 동국세시기의

12) 정승모, ‘석전’,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227쪽에서 인용.

13) 『隋書』『東夷傳 高麗』, “每年初 聚戲於涓水之上 王乘輦 列羽儀以觀之 事畢 王以衣服入水 分左右爲二部 以水石相濺擲 誼呼馳逐再三而止.”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71), 149쪽 원문재인용.

악습이 되었다는 기록과는 달리 두세 차례 하다 마는 것은 이 기사가 단순한 놀이나 싸움이 아니고 제의의 표현임을 말해준다.

줄다리기가 풍흉을 기원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여름과 겨울의 싸움의 한 형상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반해 돌팔매 싸움은 여름과 겨울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新舊의 싸움이 아닌가 한다. 매해 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신년제의였음을 말해준다. 신년제와는 送舊迎新 제의이다. 오래된 것, 가야 할 것과 올 것, 새로운 것과의 다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농사의 풍흉과 겹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왜 신년제의인가? 이에 대해 김열규의 지적이 있다. “便戰의 勝負 이전에는 새로운 해, 또는 새로운 節侯도 미지의 어둠 속인 것이다. 편전의 결말로써 비로소 결정지워지는 것이다.”¹⁴⁾ 김열규는 『동국세시기』 기록에 맞추어 이를 풍흉의 결정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상태로 적용해볼 수 있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런 승부로써 미리 결정지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좋은 결과이든 좋지 못한 결과이든 결정이 나는 것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의 불안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가령 개인에 있어서도 점을 치면 미지의 불안이 상당히 정리된다.吉이건凶이건 마음을 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결과가 없으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돌팔매 싸움이나 줄다리기, 내농작은 모두 싸움의 형식을 띠는 점에서 공통된다. 줄다리기와 내농작은 농삿일의 모습을 띠며 싸움 형식을 갖기에 풍년을 기원하는 여름과 겨울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돌팔매 싸움은 그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의 싸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새해 또는 새봄을 맞으면서 겹쳐서 한가지로 이해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고싸움 놀이나 차전놀이, 햇불싸움, 박시놀이 등과 함께, 이들이 모두 경쟁 즉 싸움의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대보름 풍속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는 또 흠치기, 속이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14) 김열규, 앞의 책, 141쪽.

있다. 대표적인 것은 ‘복토 흠치기’이다. 부잣집 흠을 흠쳐다가 자기 집 마당에 뿌리는 것이다. 이러면 복이 함께 따라온다고 믿는다. 부잣집에서는 밤새 불을 밝혀두고 집안을 지켰다고 한다. 경주에서는 잘사는 마을의 바윗돌을 이웃마을에서 흠쳐간 일도 있었다. 평안도 등지에는 땔나무 흠치기, 전남 지역에서는 개펄 흠치기 등이 같은 성격의 민속이다.¹⁵⁾

호남 지역에서는 ‘디딜방아 흠치기’가 있었다. 대보름 당산제를 마친 후 여성들이 인근 마을로 디딜방아를 흠치러 간다. 때에 따라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디딜방아에 황토나 피를 묻힌 고쟁이를 씌운다. 성적인 연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충북에서는 이 때 상여소리를 하기도 한다. 염병을 막자는 의미라고 한다.¹⁶⁾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대보름 민속인 ‘더위팔기’는 언령주술이지만, 속이기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아침에 만난 사람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하고 소리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해의 더위를 팔아넘기고 자신은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이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더위를 산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두 민속은 중국과 다른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더위가 아니라, 어리석음 또는 春困을 판다. 또 흠이 아니라 등잔이나 채소를 흠쳐온다.¹⁸⁾

대보름 민속으로 싸움만 큼이나 혼한 것이 불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달집태우기’이다. 물론 이는 달과 관련된 기풍의례이지만 불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다. 달이 떠오르면 달집을 태운다. 달집을 상징하는 원추형 나뭇더미를 태우는 것이다. 달을 태우는 것이 풍년의 의미가 아니라 불을 크게 사르는 것으로 풍년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달집태우기’이다. 왜 굳이 ‘달집’을 태운다는 걸까? 벧가랏대를 태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15) 하효길, ‘복토흠치기’,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162쪽.

16) 표인주, ‘디딜방아흠치기’, 같은 책, 153쪽.

17) 나경수, ‘더위팔기’, 같은 책, 149쪽.

18) 한양명, 『농업과 세시』, 『생산민속』 민속학회 학술총서(집문당, 1996), 36쪽.

‘달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달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늘의 달과 지상의 달을 짝이 되게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태우는 것이다. 이 놀이가 “오레 햇불싸움, 달집뺨기, 불절음으로 비화 되어 이웃마을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밤을 지새”¹⁹⁾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달집을 태우는 것 자체가 싸움의 요인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서는, 일종의 불꽃놀이인 ‘낙화놀이’, 대나무나 고춧대 등으로 불을 놓고 그 위를 뛰어넘는 ‘땃불농기’ 또는 ‘보름불’, 대나무에 종이와 실로 만든 기를 태워 날려보내는 ‘상냥태우기’, 작은 등잔불을 식구 수대로 만들어 불을 켜서 한 해 신수를 알아본다는 ‘식구불켜기’, 실에 불을 붙여 길흉을 점친다는 ‘실불점’, 이와 유사한 ‘짚불점’, 우물에 물이 잘 나기를 기원하는 ‘우물 밝히기’, 논둑 밭둑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 쥐불이 이웃마을과 경계에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햇불싸움’, 고추씨 등을 태우며 귀신을 쫓는 ‘귀신불농기’ 등 불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서는 ‘張油燈’이라 하여, “정월보름에 집집의 각 방에는 밤이 새도록 등불을 켜놓는다. 마치 선달 그믐날 밤 守歲 의 예와 같다.”²⁰⁾고 하였다.

연유야 어떻든 불에 관한 많은 민속이 특히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목받을 일이 아닌가 한다. 불이 가지고 있는 淨化力과 生生力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그만큼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견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 관련 민속이 이때 집중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여겨진다. 대보름이 아니라 가령 동지나 선달, 설날 또는 추석 같은 때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대보름 민속은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망들이다. 그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로 대표되는 ‘嫁樹’ 민속이다. 조선시대 시인인 김려는, ‘닭이 울 때 과일나무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둔다’는 기록을 남겼다.²¹⁾ 이렇게 하면 그 해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믿는 것이다. 줄다리기도 “그 풍요제의적 성격”을 ‘암줄과 숫줄’의 경합으로 드러낸다. 줄다

19) 강성복, ‘달집태우기’,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위의 책, 118쪽.

20) 김성원 편, 『한국의 세시풍속』(명문당, 1994), 194쪽.

21) 김종태, ‘가수(嫁樹)’,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위의 책, 135쪽.

리기의 승패로 농사의 풍흉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줄을 토막내어 각기 집으로 돌아가 소에게 먹인다. “줄이 지닌 생생력에 의해 소의 생생력을 돌구어 주자는 것이다.”²²⁾

‘애기타오기’도 같은 성격의 민속이다. 아기 없는 여성이 떡시루와 음식을 장만하여 무당과 함께 아이 많은 집 문앞에 가서 문간대장과 터주대감에게 대접하면서 빈다. 삼신으로부터 애기를 타게 되면 온몸이 찌르르하며 이고 있던 떡시루를 저절로 내리게 된다고 한다.²³⁾ 접신과 임신을 함께 엮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막연하게 빈다는 차원을 넘어서,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IV. 풍물굿의 도둑잡이 · 일광놀이

이상 살펴본 것은 우리 창세신화와 대보름 풍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특징들이었다. 두 주체 간의 싸움, 속이기 또는 훔치기, 日月 또는 불과 관련된 신화와 민속들, 자식을 낳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속에서 이와 연관 지어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흔히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마을굿에서 놀아지는 도둑잡이 또는 일광놀이라는 것이다. 주로 영남과 호남의 풍물굿에서 풍부하게 전해지는 도둑잡이 놀이 중에서 특히 뽕과리를 중이 훔쳐갔다고 하는 놀이를 살펴보자. 조정현의 조사에 따르면 도둑잡이 놀이 중에서 훔쳐간 뽕과리를 다시 찾았다는 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의 임실 필봉, 진안, 부안 정읍, 김제, 이리 등이다. 경상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뽕과리는 아니지만 도둑질 화소와 싸움 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²⁴⁾

22) 김열규, 위의 책, 174쪽.

23) 이정재,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위의 책, 173쪽.

24) 조정현, 『민속연행예술에 나타난 도둑잡이놀이의 구조와 미의식』(안동대학교 석사논문, 1998), 15~16쪽.

김현선은 정읍, 영광, 부안 등지의 우도농악을 검토하면서 도둑잡이놀이와 일광놀이의 상관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현선, 『우도농악 뒷곳의 굿놀이적 성격과 의의』, 『풍

진안 풍물굿의 사례를 제시해보자. 먼저 원진을 만들고 쇠꾼들이 뿔과리 네 개를 네 방향으로 놓고 춤추고 논다. 중광대가 원의 중심부에 있는 쇠를 훑쳐서 노름판에 들어간다. 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상쇠가 쇠를 찾아다니다가 도둑을 가려내는 다툼을 벌인다. 치배들이 중광대를 포위하고 중광대를 잡는다. 목을 치라는 영을 내리고 중광대의 집모자와 바가지탈을 영기의 삼지창으로 벗겨서 영기에 매달아서 목을 베었음을 나타낸다.²⁵⁾

이 뿔과리가 일월을 나타낸다는 점과 흔히 신년제의 성격을 가지는 마을굿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라는 점은 이 놀이가 싸움, 훑치기, 일월, 풍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위에서 보았던 대보를 민속과 창세신화의 요소와 겹치는 것이다. 물론 이들 놀이는 특히 조선후기에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속극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자연과의 갈등이 사회적인 것으로 변전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요소들의 연원은 보다 오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조정현은 “풍요기원과 도둑을 잡는 모티프가 분화되면서 극적 발전을”²⁶⁾ 이루었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그 둘은 같은 기원을 갖는 것이며 조선후기를 배경으로 하여 도둑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둑이 훑쳐간 뿔과리는 상쇠의 것이다. 상쇠는 뿔과리와 함께 일월을 상징하는 표지물을 등에 붙이고 있다. 이른바 흥박씨 또는 함박씨, 日月 등으로 불리는 거울 모양의 동그란 장식물이다. 상쇠는 이 일월을 왜 가지고 있는가? 가능한 답 한 가지는 시지은이 제시해주었다. “상쇠는 자신이 속한 농악대에서 권위와 통솔력을 갖춘 인물인 동시에 동제나 당산제·지신밟기를 하는 경우로 봐서는 마을 전체를 위한 제의의 제관 역할을 수행하는, 일시적이지만 마을전체의 사제자라고 할 수 있다. 농악대에서의 권위와 통솔력, 그리고 마을 동제에서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자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상쇠 거울인 것이다.”²⁷⁾ 김현선 또

물굿연구』 창간호(2012.8), 8~50쪽.

25) 조정현, 같은 논문, 20쪽에서 정리.

26) 위의 논문, 71쪽.

27) 시지은, 『상쇠·흥박씨와 무당·명두』 비교, 『한국무속학』 24집(한국무속학회, 2012), 166쪽.

한 이에 대하여 “우주적 원리를 구현하려는 행위를 통해서 쇠를 다시 찾는 광명을 부각시키고 농악대의 소중한 관계를 환기하는 위계질서를 수립하였다.”²⁸⁾라고 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상쇠가 마을의 사제자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무당이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쇠 거울은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지만 무당의 명두는 강신무권인 한강 이북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들이 서로 지역적으로 배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같은 역할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뜻일 수 있다. 즉 양자 공히 日月의 상징으로서의 쇠 거울의 기능은 동일한 것이며, 사제자가 강신무인가 상쇠인가에 따라 전개 양상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아울러 무당의 거울은 단군신화의 거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³¹⁾ 상쇠의 흥박씨 또한 같은 기능이 분화된 것으로 보면 민속적 연관성이 확대된다.

그러면서도 상쇠의 경우에는 흥박씨의 상징적 역할을, 이동이 편한 팽과리가 이어받아서, 도둑맞았다가 다시 찾는다고 한다. 사라졌던 일월을 다시 찾는다는 설정은 창세신화의 그것과 비견된다. 가령 평안도 <삼태자풀이>에서 미륵은 해와 달을 감추고 석가는 이를 다시 찾아내는 설정이라든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아마테라스 신의 광명을 되찾아 온다는 일본의 신화를 견주어볼 수 있다.³²⁾ 어쩌면 이는 冬至를 지나면서, 새로워지는 해를 맞이하는 놀이가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과 싸움이 개재한다. 서사가 아무 의미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창세신화에서 도둑질과 싸움이 있었던 것과 연관 짓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름과 겨울의 싸움을 형상화한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싸움은 풍요를 기원하는 싸움이고 창세신화의 싸움은 인세 차

28) 김현선, 앞의 책(2012.8), 8~50쪽.

29) 시지은, 앞의 논문, 167쪽.

30) 그것은 마을굿과 개인굿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31)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집문당, 1995), 22쪽.

32) 김현선, 앞의 책(2012.8), 8~50쪽.

지를 위한 싸움이어서 풍물굿에서 상쇠와 도둑의 싸움은 여름과 겨울의 싸움에 더 가깝다. 대부분의 마을굿이 묵은 해 또는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행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현은 “이 시기는 굿의 비밀상성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때이면서 굿의 주술·종교적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때”³³⁾라고 지적한다. 이런 비밀상적 시공간의 원형은 바로 창세의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다시 창세신화와 접맥된다.

V. 비교의 의미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의 비교가 결코 어떤 영향관계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향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에 이런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정도만을 말하고 있다. 흠치기 또는 속이기, 싸움, 일월 또는 불과 연관되기, 풍요 기원 등의 이 네 가지 외에는 서로 다른 점도 많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대보름 민속은 농사의 풍년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창세신화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들을 견주어 보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혹시 세상의 처음, 또는 한 해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처음 또는 시초의 관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갖게 된 현상일 수도 있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사람들이 ‘처음’ 또는 ‘始初’에 대하여 어떠한 관념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민속 연구의 일부일 것이다.

우선 대보름이 설보다도 새해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우선 『한국세시풍속사전』을 보면 설날의 의례가 18 항목, 속신이 15 항목인데 의례는 설차례, 세배, 正朝朝賀 등 대부분 공식적인 느낌의 것들이다. 대보름의 경우는 30 항목의 의례가 벗가릿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등 보다 민속적인 것들이고 속신은 무려 149 항목이며 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놀이도 대보름

33) 조정현, 앞의 논문, 59쪽.

에는 65 항목이나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설날보다는 대보름이 기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식적 의례가 주가 되는 설날보다도 대보름 민속이 역사적으로도 훨씬 오래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김택규가 “원래는 잠곡재배의 축원 의례를 주축으로 하는 上元이 있었고, 따라서 모든 연초의 축원의례가 보름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후에 쌀 재배가 보급되고 태음태양력을 쓰게 되며 중국에서 수용된 연초의례를 중심으로 상충이 주도하는 의례가 되었다고³⁴⁾ 말한 것과 동계이다. 한양명도, “특히 생업력과 의 관련 속에서 따져본다면 생산의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시년적, 예측적 제의들은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최소한 제의력상으로 대보름이 한 해의 세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³⁵⁾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양명은 그 이유를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늦게 태음태양력을 사용하게 된 때문으로 보았다.³⁶⁾ 설의 민속은 삼가고 자제하는 것이며 대보름 민속은 ‘집단적이며 활기찬 신명풀이의 성격’을 갖는다는 지적³⁷⁾도, 설과 보름 의례가 서로 유기적 측면으로 전개되었지만, 고대일수록 인간 생활에서 집단적 의미가 컸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보름이 더 원형적일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창조라는 태초의 시간과 한 해의 시작을 연관 지어 설명한 이는 루마니아의 종교학자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해의 종말과 새해의 기대 속에는 언제나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신화적인 순간의 반복이 있다고”³⁸⁾ 지적했다. 바빌로니아의 신년축제인 아키투에서는 마르둑 신과 티아마트 사이의 싸움이 음송되고, 마르둑과 사르파니투와의 神婚이 왕과 여신당의 聖娼에 의해 재연되는 것으로 마친다. 바벨론 뿐 아니라 히타이트, 이집트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며 이 마르둑과 티아마트의 싸움이 원초적 투쟁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창조, 곧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 옮겨움을 반복하고 현실화하는”³⁹⁾ 것임을 지적하였다. 신년제에서 우주창조가 재연되는 것은 이 둘이

34)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이원성』, 『한국문화인류학』 20집(1985), 116쪽.

35) 한양명, 앞의 논문, 앞의 책, 31쪽.

36) 위의 책, 44쪽.

37) 임재해, 앞의 논문, 앞의 책, 318쪽.

38)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현대사상사, 1984), 83쪽.

39) 위의 책, 85쪽.

‘처음’, ‘시초’라는 관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그는 여러 학자들이 새해의 시작에 관해 연구한 바를 소개하며 그 특징적인 사실들을 6 가지로 정리하였다.⁴⁰⁾ 이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보름 민속과도 겹친다. (1)과 (2)는 중간에 있는 열두 날에 대한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새해의 열두 날을 ‘정초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⁴¹⁾이라 하여 의미를 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3)은 이 기간에 불을 켜다가 다시 붙이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 대보름 풍속에 불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사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다. (4)는 성년식 거행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5)는 두 집단 간의 제의적인 싸움이다. 이는 앞에서 상세히 제시한 바와 같다. (6)은 ‘색정적 요소(처녀를 쫓아다니는 것, 간다르바적인 결혼, 오르지 등)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창세신화에서는 천치왕과 지상녀와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대보름 풍습에서 나무 시집보내기 등으로 대단히 축소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보름 민속이 전체적으로 기풍의레이기도 하므로 드라마틱한 요소는 없지만 그 성격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은 두 패의 싸움의 요소, 불에 대한 관심, 생산에의 소망의 측면에서 엘리아데가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엘리아데는 흠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불 또는 해를 흠쳐온다든지 신이 만든 세계를 악마가 가로채려 한다는 창세신화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한 해의 특정한 날에 화톳불을 피우고 그 주위를 돌며 춤추거나 뛰어넘는 행사를 벌이는데 익숙하다.”⁴²⁾ 이는 로키의 속임수에 의해 죽임을 당한 발데르를 화장한 북유럽의 신화와 연관되어 있다. 프레이저는 발데르 신화가 “해마다 신의 대리인을 불태우고 또 엄숙한 의식과 더불어 겨우살이를 채집하는 이유를 밝히는” 설화이고, “해마다 해가 빛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번창하게 하고 …… 위해 해마다 주술의 식으로 상연하던 신성한 드라마”⁴³⁾라고 한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로

40) 위의 책, 100~101쪽.

41) 천진기, ‘정초십이지일’,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위의 책, 82쪽.

42)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한겨레신문사, 2003), 799쪽.

43) 위의 책, 843쪽.

키라는 트릭스터이다. 여기서도 속임수가 풍요를 기원하는 연례 제의의 연원에 닿아 있는 것이다.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이 모두 동일한 관념 아래 포섭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 해의 마지막 날들은 이러한 창조 이전의 카오스와 동일시되고”⁴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카오스를 넘어서 코스모스로 진행되는 과정을 양자 공히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보름 민속에서 달을 중시하는 것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과 봄의 순환, 여름과 겨울의 싸움, 죽음과 재생을 가장 잘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달이기 때문이다. 달은 한 달이라는 매우 적절한 기간을 통하여 죽음과 삶의 반복을 이해하기 쉽게 형상화해준다. 달신앙의 고대성과 보편성은 이러한 점에서 쉽게 수긍되는 것이다.⁴⁵⁾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반복적 주기적 재연은 농경과도 관계될 수 있다. “식물의 한 살이가 보여주는 드라마는 자연과 인간이 주기적으로 재생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상징 기능을 수행한다.”⁴⁶⁾ 엘리아데는 페르샤의 타타르 인들은 새해가 시작할 때 흙이 담긴 병에다 씨앗을 심는데 이것은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⁷⁾ 농경과 천지창조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대보름 민속이 새해의 시작 의례이면서 동시에 농경의 기풍의레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은 세계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진행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동시에 시초 의례이면서 풍요 의례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에 왜 그렇게 유사한 신화소 및 풍속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가 한다. 창세신화와 대보름 민속에 공통되는 네 가지 특징을 통해 신화와 민속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 방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풍물굿 뒷굿의 도둑잡이놀이 또는 일광놀이의 흠치기와

44) 엘리아데, 앞의 책, 102쪽.

45) 엘리아데, 앞의 책, 124쪽,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한길사, 2012), 226쪽.

46) 엘리아데, 『우주와 역사』, 앞의 책, 95쪽.

47) 위의 책, 같은 곳.

찾기, 싸움, 풍요제의적 성격 등을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한강이북 강신무들의 해의 상징인 명두도 큰 범주에서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 창세신화로부터 비롯되는 태양 찾기의 모티프가 단군신화, 동지 풍속, 무당의 명두, 상쇠의 흥박씨, 대보름의 불놀이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해명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뒷곳에서 시간적 질서나 짜임새가 해체되고 공간적 무질서와 도가니가 주가 된다.’⁴⁸⁾는 지적도 우리의 논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우리 대보름 풍속에 패를 갈라 겨루기를 하는 놀이가 많다는 특징적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놀이와 행사로 이해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이해도 가능하지 않은지 살펴보았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창세신화였다. 창세신화에는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대결을 벌였다는 화소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런 싸움은 무엇보다 세상의 시작과 연관되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보름에 혼한 싸움들도 한 해의 시작이라는 점과 연관되기에 둘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창세신화에 보이는 두 주체의 싸움, 그 과정에 보이는 속이기와 흠치기 화소, 해와 달의 모티프와 불 또는 빛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천부지모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생산에의 소망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는 그대로 대보름 민속과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팔매 싸움, 줄다리기, 내농작 등 싸움의 형식을 갖는 민속들, 복토 흠치기와 디딜방아 흠치기 등에 보이는 흠치기/속이기의 양상, 달집태우기나 땃불놓기 등 대보름에 혼한 불 또는 빛과 관련된 민속들,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나 줄다리기로 대변되는 생산에의 소망 등이 그러했다.

이 둘 사이에 마을곳에서 도둑맞은 해를 되찾는다는 일광놀이를 연관지어보

48) 김현선, 앞의 논문, 30쪽.

면 더 많은 민속적 사실을 일관되게 해명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특히 사제자로서 상쇠의 역할을 강신무권의 무당과 비교해보면 흥박씨의 해의 상징성과 그것을 도둑맞고 되찾는다는 이미지가 창세신화와 접맥해 있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세계 태초의 시간과 한 해의 시작의 시간이 동질의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다. 엘리야데는 세계 곳곳의 신화와 민속을 이용해 이들 모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 과정의 반복적 주기적 재연은 농경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과 닮아 있기에 한해의 시작 의례가 기풍의레이기도 하다는 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설명이고 누구나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어왔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명해 보이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는 이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연관 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둘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서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도 아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는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대보름 민속을 보다 큰 단위에서 그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보름 민속을 세시풍속의 범주 안에 서만 고찰할 경우보다 오히려 대보름 민속의 성격이 선명해지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보였던 우리의 창세신화와 대보름민속이 이렇게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민중문화의 성격을 보다 일관되게 설명해보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英祖實錄 四十七年(1771年), 한국고전종합DB.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1~511쪽.
- 김성원 편,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1994, 1~406쪽.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1~321쪽.
-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이원성』, 『한국문화인류학』 20집, 1985, 107~134쪽.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 _____, 『우도농악 뒷국의 굿놀이적 성격과 의의』, 『풍물굿연구』 창간호, 2012.8, 8~50쪽.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411쪽.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30쪽.
- 시지은, 『상쇠 ‘홍박씨’와 무당 ‘명두’ 비교』, 『한국무속학』 24집, 한국무속학회, 2012, 149~172쪽.
- 신연우,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역사성과 문학성』,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07~136쪽.
- 임재해, 『설과 보름 민속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상관성』, 『한국민속학』 19권1호, 1986, 한국민속학회, 295~319쪽.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1~331쪽.
- 조정현, 『민속연행예술에 나타난 도둑잡이놀이의 구조와 미의식』,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1998, 1~97쪽.
- 한양명, 『농업과 세시』 민속학회 학술총서, 『생산민속』, 집문당, 1996, 31~46쪽.
- M. 엘리야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84. 1~352쪽.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1~918쪽.
- J. 해리슨, 오병남·김현희 공역, 『고대 예술과 제의』, 예전사, 1996, 1~246쪽.
- J. 웨스턴, 정덕애 역,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 문학과지성사, 1988, 1~265쪽.

On Some similarities between Creation Myths and folklore of January 15th of the Lunar Year in Korea

Shin, Yeon-Woo*

We have many folk games on the festive seasons through the year in Korea, and on January 15th of the lunar year there especially are so many gang fight games.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why.

We usually understand the folklores of the January 15th as the games and events for forecasting a good or bad harvest of the year, but there seemed to be other reasons could be count, I think, because we have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the creation myths in Korea.

In those creation myths, we can notice the fight motif between Miruk and SeokKa or Taebwolwang and Sobyolwang; they fight each other on the problem who will rule over this world. This figh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primal chaos, the beginning of the world. And the gang fights of January 15th are play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s well.

We examined four motifs in the creation myths; ① the cosmic fight between two heroes, ② trick and stealing of SeokKa or Sobyolwang, ③ modification of the sun and moon, ④ holy marriage of heaven-men and earth-woman.

They correspond with the folklore of January 15th; ① gang fighting folklores such as stone throwing, playing tug-of-war, pseudo-farming in the court. ② trick and stealing shown in 'Stealing good-fortune soil', or 'Stealing treadmill'. ③ so many folklores related to fire or light as 'Burning rice sheaves', 'Displaying fireworks'. ④ wishes for affluence

* SeoulTech University

such as 'Jujube tree marriage', What lay behind this similarities is the awareness of the homogeneity of the time of the beginning, the likeness of the beginning of this world and a new year. Eliade of Romania explained that it showed the same process of 'From Chaos to Cosmos', using the various myths and folklores of the world. And he also showed us that the beginning folklore of a new year is the folklore of the bumper crop year, for the cyclically repetitive process is the similar to the cyclic re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e.

[Key-Words] creation myth, folklore of January 15th, Korea, gang fighting, wish for bumper year, Eliade.

※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9일 투고되어
201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3년 12월 20일 수정 완료하여
2013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